

만0세~1세 하루 일과 별 사례 및 부모역할

부모와 영아 상호작용 상황	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	부모역할
수유하기	부모가 정해놓은 시간에 수유하면서 - “우리 아가 배고팠지, 배고픈 것 잘 참았네, 3시간마다 한 번씩 수유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.”	수유는 가능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만, 영아의 신체 상황, 일상생활 일정 등 상황에 따라 융통성이 필요하다.
기저귀 갈기	부모가 영아의 기저귀를 갈면서 - “아이고, 우리 집 오줌싸개 옆집 00처럼 기저귀 빨리 떼어야지.”	기저귀 갈이는 부모와 영아가 친밀하게 상호작용하고 놀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다. 기저귀를 갈면서 ‘우리 아가 나날이 부쩍부쩍 잘 크고 있구나. 자 다리 운동 해 볼까. 그래 기저귀를 잠시라도 떼어 놓으니 기분이 좋지!’ 등과 같이 부모 자녀간 긍정적 상호작용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.
놀이시간	형제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서로 다룰 때 - “너희들은 틈만 나면 싸우는구나. 너 혼자 가지고 놀라고 사 준 것은 아니지. 서로 양보해 가면서 잘 놀아야지. 엄마가 너희들 필요한대로 모든 것을 다 사줄 수는 없잖아.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.”	17개월경부터 영아는 ‘내거야’라는 말을 자주할 수 있다. 자기 소유물에 대한 욕구와 집착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좋아하는 물건을 나누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. 이럴 때 부모는 형과 동생 각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(예: ‘그래 그건 네 장난감이지, 형이 자꾸 빼앗아 가서 네 놀이를 방해하는구나’ / 형에게 ‘동생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하고 싶으면 동생한테 허락을 받아야지’), 어떻게 물건을 가지고 함께 놀이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는다.
	장난감을 온통 어지럽게 늘어놓은 영아를 봤을 때 - “야, 너 이렇게 어질러놓으면 어떡해. 엄마 청소 또 해야 하잖아. 네 물건은 네가 정리해야 한다고 엄마가 몇 번을 말했니? 그렇게 정리정돈 잘 하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 못돼.”	장난감을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중요하다. 이 과정에서 아이의 인성을 비난·비교하기, 부모의 피곤함을 아이에게 전이하여 화를 내서는 안 된다. 이 경우 부모는 ‘장난감 정리하는 것을 잊었구나. 엄마가 도와줄 테니 장난감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자’며 아이가 정리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(노래 부르기)을 이용하여 장난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.
낮잠	자고 일어나 이유 없이 우는 영아에게 - “아 실컷 자고 나서 울기부터 하는구나. 네가 울면 엄마가 화가 나~ 울음 똑 그치자. 어서~ 계속 울면 경찰아저씨가 와서 잡아간다.”	낮잠을 자고 난 영아는 눈을 떴을 때 낮선 상황을 느끼거나 기저귀 등이 불편하여 울기도 한다. 부모는 영아의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, 세밀하게 관찰하여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찾는다. 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.
외출	낮선 장소에서 아이가 외투를 벗지 않고 놀이하겠다고 할 때 - “어서 외투 벗자, 다른 애들은 다 코트 벗었잖아, 너만 벗고 있지 않으면 우스꽝스러워 보인다.”	이 시기 영아는 낯선 환경에 의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. 부모는 영아에게 이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, 아이가 안심하여 외투를 벗을 때 까지 기다린다.
아이를 분리할 때	부모가 급한 불일이 있어 영아를 친척집에 맡기고 나오려 하자, 영아가 막무가내로 떼를 쓸 때 - ‘엄마 금방 올 거야. 걱정 마. 아이 착하지 고모가 잘 돌봐 주실 거다’라고 반복해서 말하여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불안해한다. 이때 엄마가 ‘엄마 안 간다. 그래 알았어. 걱정하지마’라고 하고는 영아가 보지 않을 때 몰래 나온다.	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사실과 다르게 말해서는 안 된다. 영아가 강하게 떼를 부려도 엄마가 곧 돌아올 테니 안심하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며 믿음을 준다.